

'남도 민속학 대부' 故 지춘상 교수 자료 2만여점 亞문화추진단에 기증

들노래·씻김굿·고싸움놀이·진도상여... 남도의 숨결, 더 많은 이들과 공유

아내 김용서 전남대(73·의류학과) 명예 교수가 기억하는 남편 지춘상(1931~2009)교수의 모습이 있다. 서재에 붙어박혀 커다란 녹음기를 틀어 놓고 헤드폰을 낀 채 채집해 온 노래 가사를 적어 내려가던 모습이다. 그는 녹음기를 수없이 켜고 끄다 반복하며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가사를 써내려가고 내용을 분석하고 공부하곤 했다.

방학 때면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쌀과 반찬을 챙겨 현장으로 나가던 지교수는 조도와 장사도에서 조난당하는 큰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연구비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지만 그는 사비를 들여 남도 곳곳을 누비며 사라져 가는 민속문화를 채집했다.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난 지 교수의 '남도 민속학의 대부'로 불린다. 남도 민속

역할을 했다. 그는 관련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고증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작품을 구성해 지금 우리가 수많은 축제나 공연 작품 등에서 만날 수 있는 원형을 만들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들노래, 씻김굿, 농악 등 무려 20여개의 민속놀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빛을 보았다.

김 교수는 "남편은 전국민속경연대회 등에 나갈 때면 새벽부터 일어나 대형 운동장에 모여 리허설을 하고, 그 과정을 녹음해서 수정하고 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다"며 "문화재로 지정될 때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했다"고 회고했다.

지교수가 평생 현장에서 수집했던 2만여건의 민속자료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기증된다. 2014년 완공될 국립



1970년대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지춘상 교수 모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제공>

전승 현장조차 없는 수 많은 영상·녹음 자료들 녹음기 수없이 켜다 켜다... 곳곳 누비며 문화채집 국립민속박물관 등서 관리·보존... 내일 기증식



김교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가운데 최초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고싸움놀이(제33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여수 우수영의 강강술래를 발굴, 재현해낸 사람이 바로 지교수다.

지교수는 특히 단순히 발굴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민속놀이를 전국민속경연대회와 남도 문화제 등에 출품, 이들 작품이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데 큰

아시아문화재단에서 많은 이들이 이 자료를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는 김교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오는 29일 오후 2시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실에서 열리는 이번 기증식에서는 남도민속 전시와 함께 한국민속극의 대가인 심우성씨가 지교수를 회고하는 강연도 가

질 예정이다. 이번 기증한 민속자료는 현장조사 사진을 비롯해 동영상, 녹음 자료, 조사 노트 등 2만1000여건에 이른다. '씻김굿', '돌실나이', '종효동 당산제', '보성 별신제', '산대놀이', '달집태우기', '진도 상여', '법성포 단오제', '영산골목줄다리기'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이제는 단절돼 더 이상 전승현장을 찾을 수조차 없는 수많은 민속자료들이 영상과 녹음 형태로 담겨 있다. 또 1990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수집한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민속자료들도 포함돼 있다.

추진단 측은 지교수의 자료들이 민속학

적으로도 가치가 높아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 관리·보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이번에 아카이빙된 자료가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많은 해답을 제공해주는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빛깔을 드러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남편은 남도 민속이 사라지기 전에 남도 민속을 발굴해서 정리를 해야한다는 신념으로 일했다"며 "후학들이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 연구하고 조사가 안된 부분들은 더 연구해 문화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담양서점 김귀수씨, 古書 100여권 전남대 호남한문연구실에 기증

“아쉽지만 보람... 고전연구에 작지만 보탬 되길”

담양서점의 김귀수(76·사진) 대표는 광주 시 동구 계림동에서만 43년째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1969년 광주교도정문 앞에 처음 문을 연 이후 현재의 위치(계림동 우체국 자리)로 옮겨와 27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담양서점은 고서(古書) 전문 서점이다. 김 대표는 옛 성현들의 문집, 족보, 향토지, 교지 등 다양한 고서를 수집해 광주의 대표 고서점으로 키워냈다.

김 대표가 최근 사료적 가치가 높은 고서

100여권을 호남 한문문집·지방지·문중문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전남대 호남한문연구실(책임교수 김대현 국문과 교수)에 연구 자료로 기증했다. 김 대표는 늘 서점을 자주 찾아와 인연이 있었던 김교수에게 선뜻 책을 내놓았다.

이번에 기증한 도서는 '광산 김씨 문숙공파(文肅公派) 족보'를 비롯한 족보류, '여력재집(餘力齋集) 3책'을 비롯한 문집류, '전등신화(剪燈新話)' 등 소설류, '시전(詩傳)', '서전(書傳)'을 비롯한 중국 간행 서적류 등

총 100여책이다. “내가 한문 공부를 조금 해서 예전부터 고서를 많이 취급했어요. 한때 고서서 5~6000책에 달해 대학 도서관이나 박물관, 학교에서 구입해가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고서를 찾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어요.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들이라 아쉽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한문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에게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더 넓게 공부하시고 그러면 저도 보람이 있겠지요.”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대현 책임교수는 “이번 기증 도서는 한문고전을 연구하는데 좋은 연구 자료”라며 “선뜻 100여 책의 자료를 기증한 사장님의 뜻을 생각해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병원치료를 받느라 서점을 2~3개월 닫아야 했던 김 대표는 아예 간판을 내려 버릴 생각도 했었다.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서점을 접을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퇴원하고 나니까 또 미련이 남네요(웃음). 오래 하지는 못하겠지만 당분간은 서점 문을 열 생각입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수경 '회상, 남광주역' 여성 그린나래상

'여성+공간 광주여성공간스토토리텔링' 수상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이윤자)이 주최한 제2회 여성+공간 광주여성공간스토토리텔링 공모전 수상작이 결정됐다.

1등상인 여성 그린나래상은 기차를 타고 광주에 입성한 가족의 이야기와 중 3이었던 5·18 때 기차를 타고 다시 시골로 떠난 이야기를 통해 남광주역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을 담아낸 '회상, 남광주역'(김수경)이 받았다.

2등상인 여성가온누리상은 '전쟁의 야만성에 대항한 여성의 양육'(충원연·이순영),

'그때 그 시절의 맛이 그리워요'(송정리 5일 시장·채현숙)이 받았으며 여성들을 대상으로는 '방구동 이야기 추억 쌓인 그 방갈로'(풍암동 방갈로·박정자), '총장서림'(박은정), '우리들의 푸른 보리밭 장동 99번지'(광주여고·김은정) 등 세편이 선정됐다.

입상작들에게는 총 17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입상작품들은 광주여성전시장에 전시될 예정이며, 광주여성재단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후원: 한국관광공사 강원권협력단

크리스마스에 떠나는 남이섬 · 김유정문학촌 · 소양댐 기차여행

남이섬은 “겨울연가”, “우리결혼했어요”등등 여러 방송 촬영지로 내외국인에게 알려져 있는 곳이며, 매년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김유정문학촌은 한국의 대표적인 단편문학 작가인 “김유정 선생”의 생가로 외양간, 디딜방앗간, 전시관 등으로 문화공간이다. 또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동양최대의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을 관광하게 되며, 춘천의 유명한 음식으로 알려진 춘천 먹거리등등 관광하게된다.

출발일 12월 24일 23시50분경 광주역 출발

여행비 성인 70,000원
소인 55,000원

포함사항 왕복무궁화호 열차비, 현지 차량비, 남이섬입장료, 여행자보험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제-
[맥주 or 소주 1병] 맥
[와인 or 생맥주 1잔]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Be natural Be delicious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